

발간사

북한은 아직도, 특히 서방세계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악화된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가끔씩 서방 신문의 머리기사에 등장하는 북한에 관한 뉴스들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가깝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동아시아의 지역 문제를 넘어서서, 전세계적 의미를 지니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북한 및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남과 북을 포괄하는 코레아를 독일 사회에 소개해 온 <코레아 포럼>은, 창간 이래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기사들을 신는 데에도 노력해왔다. 이번 호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특집의 주제로 삼는다. 남한과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한지 15년이 흘렀다. 현재, 세계 식량 계획,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유엔 기구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정부들, 전 세계의 여러 종류의 비정부기구 등, 많은 기관, 단체들이 북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남한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호는, 상이한 관점에서 활동해 온 다섯 기관 및 단체의 경험과 성찰이 들어 있는 다섯 꼭지의 글을 특집으로 신는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운동의 평화나눔센터의 이종무 소장은 1995년 이래 진행된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의 흐름을 개관하고, 남한의 대북 지원이 다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의 다른 점, 즉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파생되는 여러 특성들을 설명한다. 또한 대북지원의 3대 주요 행위자로서 중앙정부, NGO, 지방 자치단체를 소개하고, 이들의 활동이 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을 분석한 후, 남한의 대북지원이 개발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한 토론으로 글을 맺는다.

남한의 비정부기구인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의 황윤옥 사무총장은 이 단체가 전개하는 북한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구체적인 지원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국제 기구로서는, 유럽 연합의 입장과 이탈리아 정부의 관점을 소개, 분석하는 글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한스 헤인스브룩(네델란드)의 글은 지원 단체들의 관점, 지원 단체들의 입장에서 대두되는 대북지원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게 해준다. 이 다섯 글들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

경기도>, <통일연구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에서 주최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11월 24-26일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발표된 강연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외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글과 2009년 11월 말에 있었던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 및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지하 시인은 2008년 촛불 시위를 계기로 하여, 독일의 동포들을 위한 자신의 시적, 철학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진실 화해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교수는, 곧 문을 닫게 될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은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한국 정치사의 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으며, 칼리노프스키 교수는 재벌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묘사한다.

남한에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문화간 만남의 문제와 씨름해 온 프랑스의 예술인, 메리아텍 다미앙의 포토에세이 <다른 시선>은 독자들을, 미적, 철학적 체험으로 초대한다. 사진 시리즈 <편자 대장간>은, 1987년 연변의 한 편자 대장간의 작업을 통해, 산업 사회 이전 동아시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산업시대가 갖고 있는 진보의 믿음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

이번 호에 글과 사진을 보내준 작가들에게, 또 이 잡지가 나오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모두가 독자와 더불어 <코레아 포럼>이라는 기획, 한독간의 문화간 대화의 길에 동참하는 친구이다.

최현덕, 요켄 힐트만, 한정화